‘천년을 세우다’ 기틀 마련…불교중흥 기대

2023 종단 결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등
조계종 주요 종책 사업에 탄력
종단 직영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천태 · 태고종 총무원장 교체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

2023년 한국불교는 장자종단 조계종의 제37대 집행부가 주요 종책으로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의 기틀을 마련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7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종단적 불사 ‘천년을 세우다’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신도 · 포교단체, 개인 후원이 이뤄지면서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연해 재정을 뒷받침했다.

불상의 코끝부터 지면 바위 거리가 5㎝밖에 되지 않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은 안정성과 종교적 가치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입불과 현 상태 보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명상지도자들의 모임과 연구위원회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조계종 미래본부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해 종단 표준 명상법 개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종단차원의 명상센터 건립 또한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직영으로 전환한 파라밀요양병원이 지난 5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것은 승려노후복지 확대의 결실이었다. 조계종 스님들이 우선 입원 대상자긴 하지만 기반을 다지면 이웃종단 스님과 재가불자들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천태종과 태고종도 각각 총무원장이 교체되면서 종단 일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3월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덕수 스님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어진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마음을 닦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천명했다.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확립할 것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또한 선거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도 약속했다. 이후 대사회 구호활동을 비롯해 전국종무원을 순회하며 결속을 다져 종단 안정을 꾀했다.

지난 4년간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화합을 이뤄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제13대 회장으로 광용 스님을 선출하며 다시 한 차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선거인 데다 광용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선거법 미비로 발생했던 과거의 혼란을 말끔히 씻어냈다. 광용 스님은 취임식에서 “중앙본회와 19개의 지회가 화합할 승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구니승가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약자의 아픔 보듬으며 보살행 실천

2023 대사회 결산

약자들 편에서 평등 세상 발원
국내외 구호활동 전개해 자비행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한인마을’을 점검하고 인근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불교계는 올해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기도회, 오체투지 등을 통해 노동자 ·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설움을 함께했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 NGO 단체의 구호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갈등의 현장에 뛰어든 스님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활동을 적극 실천했다. 그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장애인 차별 없는 완전한 통합사회를 발원했다.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 전국 오체투지에 연대의 뜻을 표하며,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서울 오체투지를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또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DL이앤씨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故 강보경 노동자의 49재를 겸한 추모위령재를 시작으로 매주 2회 분향소에서 추모기도를 열었다. 유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청 기업인 DL이앤씨의 공식 사과와 합의를 이끌었다. 유가족은 “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스님들이 함께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하고 버틸 힘이 생겼다”며 “조계종 사노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는 여름 집중 호우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 NGO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금 전달은 물론이고 생필품 지원,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이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동체대비 실천은 국외로도 이어졌다. 올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곧바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연에 나섰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재난현장을 직접 찾아 일상회복을 위한 봉사를 펼쳤고, 임시주거시설도 제공했다. 올해 9월 모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조계종 사회부와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연대한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이 현지 긴급구호에 나섰다. 로터스월드도 59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를 위해 긴급 모금을 실시, 식료품과 모기장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김내영 기자



11월 11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개막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문화유산 제자리…부석사 관음상 아쉬움

2023 문화재·학술 결산

도난 · 은닉 성보 32점 ‘환지본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제자리로
성철 스님 등 추모 세미나 잇달아
한국불교학회 50주년 맞아 행사도

2023년은 불교문화유산들의 환지본처가 잇단 해였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들이 본래 사찰로 돌아가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일본에 소장됐던 700년 전 제작 고려사경이 국내로 돌아오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6월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寫經) ‘묘법연화경 권제6’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일본의 한 소장자가 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흩어진 불교 관련 문화유산들도 제자리를 찾았다.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5년여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이 8월 10일 환수 기념 행사를 갖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월정사 등 불교계가 환수를 주도했던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달 환지본처한 오대산 사고본은 현재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운영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한 것으로, 조계종과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위해 이를 국가에 기증했다.

다만 7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 확정으로 부석사로 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불교학계에서는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 ‘성철스님의 불교 인식과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3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성철 스님이 선문의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해 발간한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인 구산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간 국제학술대회 · 심포지엄,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 효봉 · 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구산 스님에게 혜명(慧明)이라는 법명을 받고 송광사에서 간화선을 수행했던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와 덴마크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는 청화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는 11월 30일 전남 무안 혜운사에서 열렸다.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렸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 · 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 ·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불교학회가 창립 50돌을 맞은 것도 의미가 있다. 1973년 7월 7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창립한 한국불교학회는 최초의 불교학 전문 학술단체로, 창립 이후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해왔다. 신중일 기자

